

# 현대 패션 및 메이크업에 표현된 데카당스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선정희\* · 유태순

춘해대학 뷰티코디네이션과 겸임강사\* · 대구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A Study on the Decadent Characteristics in Modern Fashion and Make-up

Jung-Hee Sun\* and Tai-Soon Yoo

Concurrent Lecturer, Dept of Beauty Coordination, Choonhae College\*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Catholic University of Teagu  
(2001. 5. 18 투고)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be of use for more successful prediction of possible prevailing aesthetic characteristics in the future, by reviewing how decadent features have actually been unfolded in fashion and make-up since the end of 20th century, as we are now in the new 21st century.

The decadent traits of modern fashion and make-up since the late '90s could be listed as follows: first, the fashion has intentionally been designed to look disgusting, where realistic and imaginary images coexist, by using a half-man, half-machine image or vividly describing detestable animal skin, There have also been disgusting features in the make-up, which are so extremely weird that we can created by adding vinyl or pieces of textiles like patch of the 17th century.

Second, the satanic character of the fashion seems to be meant to keep in harmony with evil image such as Dracula, witch, skeleton or warrior of the evil, in order to charge the unnatural, inhuman and fin-de-siecle phenomenon and find out what it really means for the inner world of men. And the demonic expressions of the make-up chiefly use white or black color or blue color of low saturation or low lightness, and part of facial features is exaggerated or shortchanged.

Third, the decadent characteristics are expressed in the fashion by attaching sensational ornament to the human bode or using sexual exposure. So they give unnatural, unsound and extremely erotic impressions. The decadent features in the make-up are generated by excessively using a gay red color or sensational, exciting colors.

Fourth, the exoticism of the fashion is largely affected by China's Chipoah, Japan's Kimono or primitive motives from Africa, as there are increasing interests in Asia.

And that of the make-up leans toward the East, as Kabuki make-up from Japan, Kyongkeuk make-up from China or the primitive features from Africa are employed.

## I. 서론

199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전반에 걸쳐 질서의 파괴와 신, 구세대의 갈등에 따른 윤리도덕의 타락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불경기, 가치의 타락, 패배주의와 소외의 분위기인 퇴폐적 세기말의 경향은 정상적이고 평범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왜곡, 과장, 충격, 시각적 스캔들, 에로티시즘, 병든 유머, 퇴폐적 엽기 등의 이미지와 같은 시각적인 충격을 주는 새로운 미적 가치의 데카당스예술을 싹트게 했다. 19세기 말기에 프랑스 및 영국에서 유행한 문화경향으로 나타난 데카당스는 병적인 감수성, 탐미적 경향, 전통의 부정 및 비도덕성을 특징으로 소외, 고독, 움츠림, 무감각 등 병적이며 부정적인 단어들로 대변되는 고전적이고 절대적인 미가 붕괴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득세하여 나타난 예술양식이였다.<sup>1)</sup>

실험적인 강한 충동의 산물인 데카당스는 무한한 다양성을 지닌 추의 영역일부에 위치하는 주변적 산물이다. 미적 범주내에 추는 미의 개념이 단지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으로 재정립됨에 따라 미적 가치의 영역도 '미'와 '추'의 이원적으로 구분되어질 수 없는 시대인 만큼 패션과 메이크업에서도 고전적인 미에 대한 가치는 재정립되어야 한다. 또한 혐오스러운 것, 퇴폐적인 것, 악마스러운 것 등으로 표현영역의 한계를 극복한 데카당스는 지난 세기 문화에 대한 반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의 새로운 문화를 하나의 연속으로 여는 것으로 20세기를 보낸 세기말시대에 따른 새로운 테마로 조명해 보아야 한다.

데카당스에 관한 논문은 현대복식에 표현된 추에 관한 개념<sup>2)</sup>이나 세기말 유행경향으로 나타난 아르누보패션<sup>3)</sup>에서 다소 언급된 바가 있으나 패션과 메이크업에 관련된 데카당스적 특성을 다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목적은 지난 세기말부터 부상되었던 데카당스현상을 발생배경과 예술적 특성에 관련시켜 패션 및 메이크업에 표현된 데카당스적 특성이 어떻게 전개되어 표현되고 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미래패션에 새로운 아이디어창출의 근원이 될 수 있는 표현기법

을 정립하고자 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은 데카당스에 대한 관련학위논문과 패션 및 메이크업에 관련분야서적 등의 문헌연구를 통해 이루어졌고, 패션 및 메이크업에 관련된 실증적 분석을 위한 자료는 1990년대이후의 패션잡지 및 패션사진, 슬라이드자료 등을 이용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바탕을 고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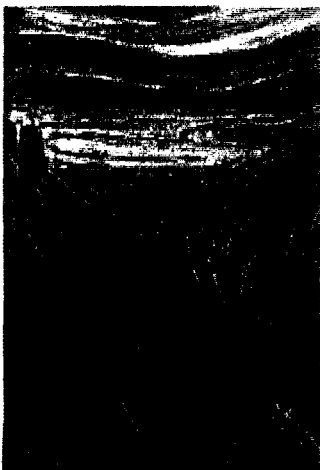
## II. 데카당스의 발생배경과 예술적 특성

1880년대에는 “데카당스”(Dekadenz, decadence)를 당대의 심리적 쾌락주의라고 불렀다. 그러나 데카당스의 개념은 심미주의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문화의 몰락과 위기라는 특징들이며 이들은 흥망성쇠라는 한 생명과정의 종말에 서 있으며 한 문명의 해체에 직면해 있다는 의식을 포함하고 있다.<sup>4)</sup>

19세기말 서구사회를 살펴보면 국내적으로는 빈부의 격차, 사상의 대립, 부정적인 재산축적, 계급의 대립, 지배자의 가면적 위선생활, 또 국외적으로는 제국주의의 식민정책, 유럽의 세계지배, 유럽의 문화가 세계상으로 부각되어 강탈, 살육, 투옥의 시대였다. 그런데 이 시대는 프랑스인들은 ‘에펠탑이 건설되고 파리만국박람회가 열린 시대’(1889), 영국인들은 ‘빅토리아시대’(1837-1901), 미국인들은 ‘프론티어 시대’라고 하여 흥모하고 ‘좋은 시대’라고 찬사를 보냈다. 이런 아이러니컬한 시대들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문학과 예술을 ‘데카당스’ 또는 ‘세기말 예술’이라고 하였다. 이는 문화의 몰락과 생명의 전진의 종말이라는 문명 붕괴의 위기를 뜻하며 이전의 모든 예술에 권태와 피로를 느끼고 일대 전환에 당면하였다는 뜻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일종의 아노미 현상으로서 수없이 언급되는 19세기의 ‘불투명’, ‘불안’, ‘의문’ 등은 경제적, 정치적 격변이 낳은 문제이기도 하였다.<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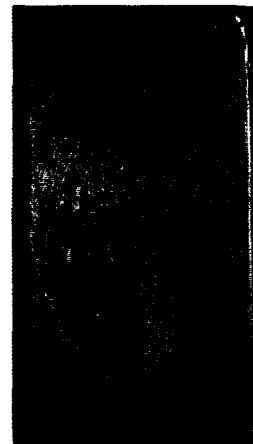
데카당스예술은 상징주의와 유미주의, 유겐트양식, 이국취향 등으로 크게 대별되어 나타났다. 19세기말의 특징적인 예술사조로 등장한 상징주의는 인간의식구조와 삶의 질적 변화 그리고 자본주의의 성

속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과 19세기 정치적 불안 등은 도피적인 상징주의 예술의 배경이 됨과 동시에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예술을 가능케 했다. 상징파는 신비성과 악마주의와 데카당스로 알려졌다. 또 그것을 세기말적 현상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는데, '데카당스'와 '세기말'적 경향은 생명의 전진의 종말이라는 문명붕괴의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괴이취미, 이국풍정, 악마주의, 유미주의 경향을 보였다. 이와같이 주관적 환상적 사상의 표현으로 개성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19세기 상징주의회화는 알베르 오리에(Albert Aurier)의 상징주의 선언에 따르면, 관념적, 상징주의적, 주관적, 장식적으로 관념의 표현을 중시하였다.<sup>6)</sup> 즉 광의의 상징주의예술이란 일상적인 물질세계를 초월한 정신세계와 연결시켜 인간을 이해하려는 예술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당시에는 객관적으로 감지되는 세계에 대한 타당성 및 권위에 의심을 품게되어 사람들은 주관적 세계에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자유분방한 상상력을 비롯한 낭만적 정서를 예술을 승화시켰고 그 어떤 규칙의 제약에도 벗어났다.<sup>7)</sup> 에드바르트 뭉크(Edvard Munch)의 <절규>에서 그는 '개성이야말로 예술적 충동의 주요 동기'라고 하였으며 참을 수 없는 공포심에서 광기를 일으키는 순간을 표현하였으며, 질병과 죽음 등은 그 당시 미술과 문학에서 보편적인 주제였다.<그림 1>



<그림 1> Edvard Munch, 절규, 1893

20세기초에 변화된 여성미학은 에로티시즘에 반영되었는데, 성적매력을 내포하는 특징들을 간접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여성미의 에로틱한 요소들을 점차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여성상은 은유적이며 주관적 감정을 강력하게 표출함으로써 욕망과 환상이 투영된 영상으로 표현되었다.<sup>8)</sup> 오브리 비어즐리(Aubrey Beardsley)의 작품은 '심미적'이고 '퇴폐적'인 오스카 와일드와 세기말의 문학과 관련되어 있다. 악마적인 것이나 에로티시즘, 퇴폐적인 것 그리고 '전술된 요부' 등의 낭만적인 환영에 사로잡혀 있다. 자신의 유혹을 거절한 세례요한의 목을 치는 <살로메>는 당시 여성상의 이원적인 의미를 잘 표현하였다.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은 프로이드의 심리분석이론의 영향을 받아 심리적인 내면세계를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유디트 I> 작품에서 약간 벌어진 입과 시선을 통해 관능적인 요부의 이미지로 여성속에 내재되어 있는 잔인하고 파괴적인 속성을 표현하였다.<그림 2><sup>9)</sup>



<그림 2> Gustav Klimt, 유디트 I, 1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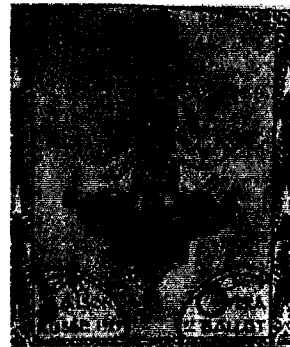
라파엘전파가 태동할 무렵의 영국은 빅토리아시대로 경제적 풍요로움에서 오는 생활의 편리함에 만족한 사람들에게는 낙천주의풍조가 팽배하였고, 그들의 생의 목적은 부의 획득과 왕실로부터 기사 작위를 획득하는 것이었으므로 극도의 물질만능주의에 빠져 있었다. 라파엘전파가 여성미에 있어 세운 새로운 미의 기준은 결코 예쁘다고 할 수 없는,

때로는 추하다고 묘사되는 현대적 개성미와 산업화 이전의 농경사회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형태의 아름다움인 도회적 퇴폐미로 노동력과 다산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그에 따른 여성 미의식이 필연적으로 존재해 왔으며 요부적 관능미를 지니고 있었다.

1880년대 영국의 러스킨과 모리스가 제창한 신흥예운동(Arts and Crafts Movement)의 영향으로 프랑스에서는 아르누보, 독일에서는 유겐트 양식이 생겨났다. 유겐트양식은 특수한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현실을 도피하고 외부세계를 개인의 내면적 고뇌로 표현하고자 하는 상징주의와 유미주의 등 초현실주의적인 경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 전개되었다. 이들 예술가들은 미의 새로운 이상과 가치를 추구하는 자유로운 개성의 예술을 위해 반복이나 모방을 거부하고 자연의 모든 유기적 생명체속에 존재하는 보다 근본적인 조건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다. 유겐트양식의 시각적 특징은 식물형태의 유기적인 곡선, 평면성, 비대칭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장식적인 형태, 선, 색채 등과 더불어 풍부한 상징성을 가졌다. 이러한 상징적이고 유미적인 경향은 자연계의 식물이나 동물의 모티브에 인간의 신체가 일체되어 나타나기도 하는 데 공상적 생물이나 반인반수(伴人半數), 반남반녀(半男半女) 등의 형태는 신화적이고 공상적으로 유겐트 양식의 자기 도취적 경향을 잘 표현하였다.<sup>10)</sup> 막스 에른스트(Max Ernst)의 <신부의 의상>이라는 작품에서도 반쯤 드러난 정상적인 인간의 육체와 혐오스럽고 기괴한 새의 두상, 그리고 깃털을 반쯤 두르고 있는 모습은 충격적으로 비춰졌다.<sup>11)</sup>

20세기에 나타난 세기말 양식은 뱀장어, 국수 가락, 촌충이라는 묘사가 유머러스하면서도 경멸적인 방식으로 세기말 양식의 특징적인 구불구불한 선을 지칭한 것이다. 꽃뿐만 아니라 잎사귀, 줄기, 뿌리를 포함하는 식물의 온갖 형태를 지칭하는 플로왈(floral)은 세기말 양식으로 새로운 양식을 추구하는 감성적 실험으로서 전 유럽에서 거의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 데, 문화적 선진국보다는 문화적 속국에서 보다 절실하게 민족주의적 색채를 띠면서 파격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다.<sup>12)</sup>

세기말양식의 개념을 완벽하게 창출해내지는 못했더라도 일반적으로 비평가들이 세기말양식을 지칭하는 경우 이것을 자국의 전통성과는 별개의 것, 이국적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인상을 강하게 풍겼다. 레온 박스트(Leon Bakst)에 의한 러시아 발레단의 <발레공연프로그램> 삽화는 세기말적인 분위기와 이국적인 이미지, 환상적인 동양의 화려한 색채조화를 지닌 다양한 개념을 표현하였다.<그림 3><sup>13)</sup>



<그림 3> Leon Bakst, 발레공연프로그램 1909

이와같이 데카당스는 악마적인 특성, 이국취향적 특성, 혐오적인 특성, 퇴폐적인 특성으로 나타났으며 20세기말을 장식해 갔던 아방가르드이라는 초석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점에서 그 예술사적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III. 현대패션 및 메이크업에 표현된 데카당스적 특성

#### 1) 혐오성

20세기 하이테크문명은 혐오스러운 원시동물형상의 비정상적인 하이테크화로 새로운 공상의 세계로 표현하고 있다. 패션에서 현실적인 이미지와 공상적인 이미지의 상호공존은 주로 반인간, 반기계 이미지의 도입, 혐오스러운 동물껍질의 리얼한 묘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인간존재가치의 상실과 동물의 인격화라는 상반된 아리러니속에서 미분화된 세계의 진실성, 웃음을 유발시키는 카타르시스적 효과 그리고 인간존재의 근원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있다.

지방시(Givenchy)는 1997년 F/W 컬렉션에서 기이하고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드레스와 새를 넣은 새장을 머리에 얹은 형상으로 현실과 공상의 세계를 반인반수의 형상으로 나타내고 있다. 무언가 자연스러운 것에서 이탈하려는 데서 오는 웃음과 함께 인간에 대한 조롱과 야유를 표현하고 있다<그림 4>. 혐오스러운 동물 이미지의 형상을 패션에 도입한 티에르 뮈글러(Thierry Mugler)는 1997년 F/W컬렉션에서 혐오스럽고 괴기스러운 새, 파충류의 여러 동물을 혼합하는 듯한 데카당스한 의상을 보여주고 있다. 초기 뮈글러 작품보다 더욱더 강렬한 색깔을 띠고 있는 이 작품은 반인반수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그림 5>.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은 1998년 F/W컬렉션에서 금속성의 인공적이며 괴기스러운 팔형상을 지닌 사이보그를 선보였다. 이러한 반인간 반로봇형상은 유겐트 양식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반인반수의 형태가 20세기 하이테크문명으로 인해 재해석되고 있다.



<그림 4> Givenchy, 1997 F/W



<그림 5> Thierry Mugler, 1997 F/W

메이크업에 표현된 데카당스적 특성은 기존메이크업의 틀을 벗어나 예술표현의 영역을 확대하여 표현하고 있다. 혐오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17세기의 패치(patch)처럼 종이, 비닐, 직물조각 등을 부착하여 기존의 메이크업에서 볼 수 없는 디테일을 표현하고 있다.

1996년 S/S컬렉션에서 알렉산더 맥퀸은 피부를 뚫고 가시가 돋아난 듯한 디테일을 사용하여 비인간적인 혐오감을 주는 메이크업을 선보이고 있다. 1997년 F/W컬렉션에서 요시키 히시누마(Yoshiki Hisinuma)는 눈썹라인 상부에 부착한 인조속눈썹이 눈을 덮을 정도로 두껍고 길어 인체 프로모션에 대한 왜곡된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림6>.



<그림 6> Masaki Matsushima, 1998 S/S

1999년 S/S 컬렉션에서 아드랭 안드르(Adeline Andre)는 속눈썹을 눈썹라인에 부착하여 얼굴전체를 다 덮을 정도 매우 길게 내리는 혐오스럽고 괴기한 메이크업을 선보이고 있다<그림7>.



<그림 7> Adekine Andre, 1999 S/S

콤므 데 가르송(Comme des Garçons)은 2001년 S/S컬렉션에서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얼굴에다 눈 주위로 비닐테이프를 불규칙적으로 부착하는 전형적인 메이크에서 볼 수 없는 괴기스러운 표현을 하고 있다.

## 2) 악마성

1970, 80년대에 오지 오스본(Ozzy Osbourne), 데프 레퍼드(Def Leppard), 아이언 메이든(Iron Maiden)을 중심으로 한 영국 헤비메탈그룹들은 영국식 보수주의에 반기를 들고, 아웃사이더적인 인간의 본성을 밖으로 표출해 보였다는 이유로 젊은이들을 열광시켰다. 이들의 비주얼이미지는 악마, 해골, 피, 십자가, 죽음 등 극도의 공포감을 주는 파격적이고 괴기스러운 것이었다. 아이언 메이든은 '쇠단두대'라는 무시무시한 의미를 지닌 제목의 곡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애리'라는 애칭을 가진 해골 마스크를 유행시키기도 하였다.<sup>14)</sup> 이러한 악마성은 드라큘라, 마녀, 해골, 악의 전사 등의 모티브와 색상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sup>15)</sup> 부자연스럽고 비인간적인 세기말적 현상을 고발하고 인간존재에 대한 참뜻을 찾고자 하는 의미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는 최근 영국디자이너들에게 이어져 괴기스러운 공포의 패션미학이 컬렉션에 활발하게 표현되고 있다. 알렉산더 맥퀸은 1997년 F/W컬렉션에서 활활 타오르는 원형의 불꽃사이로 갈기갈기 찢어진 붉은 색의상에 붉은색 후드를 뒤집어 쓴 악의 전사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시켰다. 그들은 날카로운 손톱이 달린 메탈밴드를 양손에 끼거나, 머리로부터 둘러싼 붉은 레이스드레스위로 피빛망토를 두르고 나타나 괴기스러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그림 8). 또한 일본디자이너 언더 커버(Under Cover)는 인간의 피를 빨아먹은 흡혈귀의 이미지를 1997년 F/W컬렉션에서 제안하였는데 공포, 괴기, 미스터리한 효과를 노리기 위하여 무시무시한 뱀파이어모티브를 그려 넣은 검정색드레스를 선보였다(그림 9).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는 2001년 S/S컬렉션에서 공포스러운 해골의 모티브와 우울하고 음침한 검정색으로 악마성을 동시에 나타내어 황폐하고 불안한

현대인의 정신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 8> Alexander McQueen 1997 F/W



<그림 9> Under Cover, 1997 F/W

메이크업에 표현된 데카당스적 특성은 악마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 이목구비의 일부에다 흰색이나 검정색 또는 저채도,저명도의 푸른계열 등을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는 전위적인 색채사용으로 세기말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들리크 반 샌네(Drik Van Saene)는 1997년 F/W컬렉션에서 얼굴전체를 흰색으로 칠하고 그 위에 악마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검정색의 굵고 짙은 눈썹으로 드라큘라를 연상시키는 메이크업을 연출하고 있다(그림 10). 1998년 F/W컬렉션에서 지방시는 얼굴표면을 상하로 이등분하고 서로 다른 피부색으로 표현하여 두 부분으로 분리된 독특한 조형을 보여준다. 인종이 다른 두 얼굴을 붙여 놓은 듯한 악마스러운 데카당스함이 실험적인 메이크업

을 선보였으며<그림 11> 2000년 F/W컬렉션에는 눈 중심으로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듯한 형상으로 저채도와 저명도의 블루계열색상을 아이새도우로 하고 있으며 입술에는 창백한 기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흰색으로 악마적인 분위기를 연상하는 일상적 메이크업에서 볼 수 없는 무대용메이크업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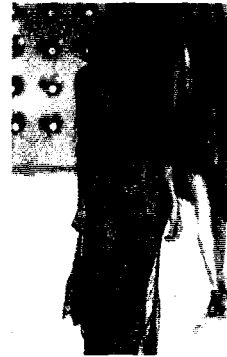
<그림 10> Dires Van Notenm 1998 S/S



<그림 11> Givenchy, 1998 F/W

적인 에로틱한 이미지로 패션에 나타내고 있다.

안토니오 베라르디(Antonio Berardi)가 2000년 S/S컬렉션에 발표한 작품은 아르누노시기의 화가인 비어즐리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인상과 유사한 면이 많으며 고딕풍의 헤어스타일과 시스루패션, 그리고 평면화된 유기적인 곡선을 통하여 당시에 자주 등장하였던 요부의 이미지를 통해 퇴폐성을 표현하고 있다<그림 12>. 또한 1999년 S/S컬렉션에서 벨라 프레도(Bella Freud)는 니트로 된 검정 바디수트를 몸을 감싸면서 그 안에는 여성의 성적부위인 가슴을 노골적으로 노출시켜면서 팬티만 착용하는 아주 에로틱한 퇴폐성을 선보였다. 2001년 S/S컬렉션에서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는 검정바디수트위에 흰색의 란제리같은 옷을 겹쳐 입은 의상을 선보였는데, 이 작품을 통해 여성의 도발적인 성적표현을 암시하는 듯한 퇴폐미를 또다른 데카당스미로 형상화하여 보여주고 있다.<그림 13>



<그림 12> Antonio Berardi, 2000 S/S

### 3) 퇴폐성

경제불황에 따른 좌절감과 문명의 위기로 인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상실을 지각하여 이에 대하여 절망적으로 항의하는 동시에 현대문명속에서 파괴되어 가는 인간의 모습을 가시적으로 인공적으로 표현하고 있다.<sup>16)</sup> 이러한 퇴폐성은 자연스러운 인체에 자극적인 장식을 하거나 성적으로 노출화으로써 부자연스럽고 불건전한 양상을 보이며, 극도의 선정



<그림 13> Christian Dior, 2001 S/S

메이크업에 표현된 데카당스적 특성은 퇴폐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 이목구비에도 강렬한 붉은 색이나 또는 자극적인 색상 등을 많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메이크업에서 볼 수 없는 선정적인 색채사용으로 데카당스를 보여주고 있다.

크리스찬 라크르와(Christian Lacroix)는 2000년 S/S 컬렉션에서 검정색으로 아주 뚜렷하게 눈썹라인을 그리고 핑크색으로 강한 볼터치로 넣어 기존의 메이크업에서 볼 수 없는 퇴폐적인 분위기를 선보이고 있다<그림 14>. 크리스찬 디올은 2000년 S/S 컬렉션에서 도발적이고 선정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붉은색으로 눈중심과 입술을 칠하고 그 위에다 금색이 들어간 선들을 불규칙적으로 얼굴에다 그리고 있다.<그림 15>



<그림 14> Christian Lacroix, 2000 S/S



<그림 15> Christian Dior, 2000 S/S

#### 4) 이국성

다변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물질적으로 풍

부해지는 반면 정신적으로 황폐해가고 있으며 기계화, 도시화된 산업사회는 인간을 고립시키고 그로 인한 부작용은 여러 가지 사회, 정치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1990년대를 접어들면서 인위적이고 획일화된 디자인에 거부감을 느끼게 되면서 동양적이면서 이국적인 취향을 지닌 특성들을 선호하게 되었다.<sup>17)</sup> 패션에 나타나는 이국적인 경향은 동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주로 중국의 치파오, 일본의 기모노, 아프리카의 원시적인 모티브 등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많이 나타났다.

크리스찬 디올은 1998년 S/S 컬렉션에서 만주족의 전통의상인 치파오가 지닌 타이트한 실루엣과 만다린칼라, 매듭단추 그리고 옆트임을 현대적 디자인으로 응용하여 재현시키고 있다. 동양풍의 자수와 여기에 에스닉한 진주목걸이와 귀걸이를 장식하여 더욱 이국적인 정서를 보여주고 있다<그림16>. 1999년 S/S 컬렉션에서는 한동안 중국풍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디자이너들이 일본의 민속의상인 기모노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은 디자인을 선보였는데,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의 쇼에서는 오리지널 기모노를 재현한 옷들과 게다를 연상시키는 높은 웨지힐을 연출하였다. 또한 북아프리카에서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하여 노려보면 재난을 가져온다고 믿고 그 인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방법으로 전갈의 독이빨, 손관절의 뼈 등 자극적인 모티브를 사용하였는데 1999년 F/W 컬렉션에서는 이러한 아프리카풍의 기하학적인 연속무늬로 표현된 거대한 블랑켓을 선보이고 있다.<그림 17>



<그림 16> Christian Dior, 1998 S/S





<그림 17> Jean Paul Gaultier, 1999 F/W

메이크업에서 표현된 이국성은 동양적인 신비로운 이국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일본가부키나 중국극, 아프리카의 원시성 등으로 선보이고 있다.

크리스찬 디올은 1998년 S/S컬렉션에서 경극메이크업의 형태에서 모티브를 얻어 눈중심으로 볼까지 광범위하게 붉은색으로 칠해줌으로써 동양여성의 색시함과 도발적인 퇴폐적인 분위기를 강조하였으며<그림 16> 1999년 S/S컬렉션에서 아프리카전사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호신기능과 승리를 기원하는 표현으로 행하는 채색을 응용한 메이크업을 얼굴과 몸전체에다 하는 메이크업을 선보이고 있다<그림 18>. 또한 2001년 F/W컬렉션에는 일본의 전통적인 무대예술인 가부키를 연상케하는 메이크업으로 온통 하얀색으로 칠한 얼굴에 자연스런 립라인을 무시하고 입술크기를 축소하여 빨간 입술을 그려 이국적인 취향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18> Christian Dior, 1999 S/S

## V. 결 론

20세기가 끝나는 1990년대 후반은 천년 세월이 끝나고 새로운 천년을 시작되는 전환기였다. 사람들에게는 심리적으로 세기말적 불안과 혼란과 더불어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이 동시에 교차되는 시기였다. 세기의 전환과 밀레니움의 전환을 동시에 맞이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사회, 문화, 예술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데카당스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연속선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대패션 및 메이크업에 있어서 데카당스적 특성이 어떻게 전개되어 표현되고 있는지를 파악, 고찰함으로써 21세기를 향한 현시점에서 미래의 미적 특성을 예견할 수 있는 응용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 목표를 두었다.

190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현대패션 및 메이크업에 나타난 데카당스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에 표현된 혐오성은 현실적인 이미지와 공상적인 이미지의 상호공존은 주로 반인간, 반기계 이미지의 도입, 혐오스러운 동물껍질의 리얼한 묘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인간존재가치의 상실과 동물의 인격화라는 상반된 아리러니속에서 미분화된 세계의 진실성, 웃음을 유발시키는 카타르시스적 효과에 몰음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메이크업에 표현된 혐오성은 17세기의 패치(patch)처럼 종이, 비닐, 직물조각 등을 부착하여 기존의 메이크업에서 볼 수 없는 디테일로 피그스럽고 혐오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둘째, 패션에 표현된 악마성은 드라큘라, 마녀, 해골, 악의 전사 등의 악마적인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어 부자연스럽고 비인간적인 세기말적 현상을 고발하고 인간내면에 대한 참뜻을 찾고자 하는 의미로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메이크업에 표현된 악마성은 이목구비의 일부에다 흰색이나 검정색 또는 저채도, 저명도의 푸른계열 등을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는 색채사용으로 마녀, 드라큘라 등의 악마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셋째, 패션에 나타난 퇴폐성은 자연스러운 인체에 자극적인 장식을 하거나 성적으로 노출화으로써

〈표1〉 현대 패션 및 메이크업에 표현된 데카당스적 특성

데카당스적 특성	패 션	메 이 크 업
협오성	현실적인 이미지와 공상적인 이미지의 상호 공존은 주로 반인간, 반기계 이미지의 도입, 혐오스러운 동물껍질의 리얼한 묘사 등으로 나타내고 있음	17세기의 패치(patch)처럼 비닐, 직물조각 등을 부착하여 기존의 메이크업에서 볼 수 없는 괴기스러운 디테일로 혐오스러운 특성을 표현하고 있음
악마성	드라큘라, 마녀, 해골, 악의 전사 등 죽음이 나 질병 또는 어둠을 나타내는 악마적인 모티프로 표현하고 있음	이목구비의 일부를 크게 과장하거나 축소시켜 흰색이나 검정색 또는 저채도, 저명도의 푸른계열 등을 많이 사용하여 악마적인 특성을 표현하고 있음
퇴폐성	자연스러운 인체에 자극적인 창식을 하거나 성적으로 노출화으로써 극도의 선정적이고 에로틱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음	이목구비의 일부에다 강렬한 붉은색이나 또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색상 등을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여 퇴폐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
이국성	중국의 치파오, 일본의 기모노, 아프리카의 원시적인 모티프 등에서 영향을 받아 나타내고 있음	일본의 가부키분장나 중국의 경극분장, 아프리카의 원시성으로 동양적인 이국성을 표현하고 있음

부자연스럽고 불건전한 양상을 보이며, 극도의 에로틱한 이미지를 나타냄으로써 현대문명속에서 파괴되어 가는 인간의 모습을 가시적으로 인공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메이크업에 표현된 퇴폐성은 이목구비에다 강렬한 붉은색이나 또는 자극적인 색상 등을 많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메이크업에서 볼 수 없는 요염하고 선정적인 색채사용으로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넷째, 패션에 표현된 이국성은 1990년대를 접어들면서 인위적이고 획일화된 디자인에 거부감을 느끼게 되면서 민족주의적 경향이 동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주로 중국의 치파오, 일본의 기모노, 아프리카의 원시적인 모티프 등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메이크업에서 표현된 이국성은 일본가부키나 중국경극, 아프리카의 원시성으로 동양적인 신비로움을 표현하고 있다.

한 시대의 패션경향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한 개념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데카당스는 세기말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은 중요한 명제로써 지난 세기 문화에 대한 반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21세기의 새로운 문화를 하나의 연속으로 여는 것으로 20세기를 보낸 세기말시대에 따른 새로운 테마로 조명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한성철, 1920년대 한국문학에 끼친 이탈리아 데카당스영향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6, pp.14-15.
- 2) 안선경, 현대복식에 표현된 추의 개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3) 최유진, 유영선, 세기말 유행경향으로 나타난 아르누보패션, 복식 제50권 2호, 2000.
- 4) Arnord Hauser, 백낙청, 염무웅(역),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창작과 비평사, 1974, p.187.
- 5) 이창윤, 19세기 상징주의 회화와 신화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p.3-5.
- 6) 양희석, 예술철학, 자유문고, 1988, pp.218-238.
- 7) 양숙희, 유럽상징주의의 복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pp.6-7.

- 8) 양숙희, op. cit., pp.12-14.
- 9) H. H. ARNASON, 현대미술의 역사, 인터내셔널 아트디자인, 1991, p.86.
- 10) 최유진, 유영선, op.cit., p.170.
- 11) H. H. Arnason, op. cit., pp.121-122.
- 12) 박수훈, 19세기말 비인을 중심으로 본 유럽세기말 건축의 표현의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p.48.
- 13) Herbert Read, 박용숙(역), The Meaning of Art, 문예출판사, 1994, p.122.
- 14) Vogue Korea, 1998, p.92.
- 15) 이예영, 김민자, 20세기패션에 나타난 세기말적 신비주의, 한국의류학회지, Vol.23, No.8, 1999, p.1214.
- 16) 장미숙, 현대메이크업에 나타난 네오아방가르드경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37.
- 17) 정원정, 1990년대후반의 현대패션에 나타나는 메이크업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인체예술학회지, 1(2), 2000, p.204.